

부모의 원가족 분화수준과 자녀양육행동과의 관계

Level of Parental Differentiation from Family of Origin :
Relationship to Child-Rearing Behaviors

정문자(Moon Ja Chung)¹⁾

최난경(Nan Kyung Choi)²⁾

ABSTRACT

The subjects of this investigation were 393 fourth and fifth graders from two elementary schools in Seoul and parents of these children. The level of fathers' emotional separation from the family of origin was higher than that of mothers'. Mothers were more warm · acceptant and rejective · restrictive than fathers; fathers were more permissive · neglectful than mothers. Both fathers and mothers were more rejective · restrictive of girls than of boys. Mothers with high scores in emotional separation from family of origin were more warm · acceptant to their children and less rejective · restrictive than those with low scores. Fathers with high scores in emotional cut off from the family of origin were more permissive · neglectful behavior of their children than fathers with low scores.

Key Words : 부모의 원가족 분화(differentiation from family of origin),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 off), 삼각화(triangulation), 정서적 분리(emotional separation), 부모의 자녀양육행동(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온정·수용행동(warm · acceptant behavior), 거부·제재행동(rejective · restrictive behavior), 허용·방임행동(permissive · neglectful behavior).

I. 서론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많은 환경 중에 부모는 최초로 경험하는 중요한 환경으로,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한다. 부모는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부모의 양육행동은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아동발달 연구에서 생태학적 관점과 전 생

¹⁾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²⁾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

Corresponding Author : Moon Ja Chung,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134 S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 : mjchung@yonsei.ac.kr

애적 관점이 강조되면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Luster & Okagaki, 1993).

가족체계론자들은 개인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타인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원가족으로부터 획득해야 할 중요한 개념으로 분화(differentiation)를 제시하였다(Bowen, 1985; Anderson, & Sabatelli, 1992). 분화는 Bowen의 가족체계이론에 포함된 하나의 개념으로 주로 대인간 거리를 유지하는 가족체계의 상호작용적 역동성으로 개인이 가족과 적절하게 친밀감과 분리감을 획득해가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므로 분화는 인간의 정서적 발달과정이며, 개인의 분화를 돕는 것이 가족의 주요 역할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가족으로부터 분화가 잘된 개인은 타인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심리적 건강이나 관계 형성에서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Lim & Jennings, 1996). 따라서 원가족으로부터 한 개인이 잘 분화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Bowen은 정서적 가족관계체계에 중점을 두고 이론을 전개하였는데, 가족의 되풀이되는 유형을 가족유형의 다세대 전이(multi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amily pattern)라고 칭하고, 이전 세대의 인간관계 유형이 다음 세대의 가족기능의 암시적 모델이 된다고 하였다. 다세대 전이과정은 여러 세대를 통해 분화수준이 전달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기와 분화수준이 유사한 사람과 결혼하여 자녀에게 투사과정을 통해 자신의 미분화와 미성숙을 전달하게 된다. 즉, 부모는 원가족에서 자신이 경험한 관계, 태도, 기대, 정서 또는 행동양식을 자기가 이론 핵가족에 그대로 적용하여 부모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다(Benson, Larson,

Wilson, & Demo, 1993).

원가족 분화수준이 낮은 부모는 자녀와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원가족에서 정서적 단절을 많이 경험할수록 부모는 자녀와 갈등적인 상호작용을 하며(유은희 · 전춘애, 1995), 일관성있는 규제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희선, 1995). 또한 아동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Davies & Cummings, 1994), 허용 또는 과보호하는 등(정문자, 1996) 부모 자신이 원가족에서 경험한 부모-자녀관계 유형을 자신이 형성한 핵가족 내에 세대간 전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족에서 부모로부터 거부당하는 경험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 본인 역시 자녀에게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연 · 전현진, 1999).

원가족 분화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자녀가 가족으로부터 높은 분화 수준을 획득하도록 자신의 정서적 세계를 구분하여 자녀가 자율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녀에게 공감적이고 긍정적인 배려를 하며, 확신과 타인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의사소통을 하는(Sabatelli & Anderson, 1991) 반면, 통제와 권위적인 상호작용은 하지 않는다(Anderson & Sabatelli, 1992). 구체적으로 정서적 단절 경험이 적을수록 자녀를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애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성취 지향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정신내적 분화가 높을수록 자녀의 성취를 고무하는 양육행동을 보인다(문희선, 1995).

다세대 전이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지각되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후 다음 세대에게 전이된다. Berne에 의하면 양육행동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정의 자녀양육행동이 변화되려면 오랜 시일이

결리며(James & Jongeward, 1971), 부모 자녀 간에는 가족적 전이로 인해 양육행동의 유형이 유사하다. 모녀간 양육행동의 세대전이(김현주, 1995; 강은주, 2000; 장혜자, 2000)와 부자간 양육행동의 세대전이(최규순, 1991)에 관한 연구에서도 세대간의 유사성이 발견되고 있다.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의 성이나 자녀의 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며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 또한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기도 한다. 어느 문화권에서든 부모는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며(Devereux, Bronfenbrenner & Rodgers, 1969), 동성의 자녀보다 이성의 자녀에게 더 관대하다(Rothbarth & Maccoby, 1966).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자녀의 지각에 있어서도 성차가 있었는데(강승혜, 1986), 남아는 여아보다 부모로부터 성취기대와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모를 더욱 거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손낙주 · 최보가, 1996).

본 연구에서는 이전 세대의 가족관계 유형이 다음 세대의 가족기능의 암시적 모델이 된다는 Bowen의 이론에 기초하여 부모의 원가족 분화수준과 자녀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대간 전이과정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깊은 관계가 있고, 원가족 분화수준과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원가족의 영향력이 현재 자녀의 양육 행동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원가족 분화수준에 대한 연구는 소수이며, 부부나 개인의 적응, 이성관계, 결혼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삼세대의 전이 과정이 될 수 있는 양육행동과 원가족 분화수준의 관계에 관해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극소수이며, 더욱이 어머니의 분화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제한되어 왔다. 자녀양

육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수준이 자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의의는 간과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대상으로 부모 자신의 원가족 분화수준을 알아봄으로써 부모의 성에 따른 원가족 분화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적절하게 형성된 친밀감과 분리감 수준의 차이가 가족기능에 세대간 전이를 통해 자녀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다세대 전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양육행동에 대한 보다 사실적인 정보를 얻고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여, 부모의 성과 아동의 성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성찰과 이해를 돕고자 한다.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자신의 원가족 경험의 반복이라는 일부 가족체계론자의 관점에서 볼 때 부모의 원가족 경험을 자녀양육행동과 연관지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의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교육 현장에서나 임상실제에서 예방, 중재, 치료적 개입 시 원가족 영향력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며 실제개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부모의 원가족 분화수준은 부모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은 부모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은 원가족 분화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두 개 초등학교를 임의 표집한 후, 4학년 10학급의 아동 154명과 5학년 10학급의 아동 239명씩의 총 393명과 그들의 부모 393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주로 40대(76.3%)와 30대(16.5%)였고, 어머니도 40대(47.6%), 30대(43.5%)가 많았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37.4%)과 대졸(36.1%)이 많았고, 어머니 또한 고졸(49.6%)과 대졸(23.7%)이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관리직(49.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판매 및 서비스직(26.2%)의 순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주부(57.7%), 사무직·관리직(15.8%), 판매 및 서비스직(14.8%)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계의 월수입은 200만원대(23.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만원대(21.9%), 100만원대(19.1%) 순이었다.

2. 연구도구

1) 부모의 원가족 분화수준

부모의 원가족 분화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연진(2002)이 개발한 원가족 분화경험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한 개인이 결혼, 공부, 취직 등의 이유로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에 경험한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다. 이는 '정서적 단절' 12 문항, '정서적 분리' 7문항, '삼각화' 7문항 등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부모가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와의 분화 정도에 대해 각각 응답하게 되므로 총 52문항이 사용되었다. 정서적 단절은 한 개인이 자신의 원가족에서 미해결된 정서적

애착을 해결하려하지 않고 물리적 거리를 두어 회피하려는 것을 의미하며, 삼각화는 특별한 형태의 세 사람간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에서는 부부간에 긴장이 발생하면, 긴장을 해소, 완화시키기 위해 부부 중 한 명이 자신들의 문제에 자녀를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분리는 한 개인이 원가족으로부터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분리를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문항들은 원가족에서의 경험과 문항내용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평정척도로 되어있다. 하위영역별로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정서적 단절이 24점에서 120점이며, 삼각화가 14점에서 70점, 정서적 분리가 14점에서 7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에서 해당하는 정서적 경험을 많이 하였음을 의미한다. 정서적 분리의 경우 정서적 단절과 삼각화와는 달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원가족 분화경험을 나타낸다.

원가족 분화경험 척도의 Cronbach α 는 전체 문항에 대해 아버지는 .86, 어머니도 .86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아버지는 정서적 단절 .94, 삼각화 .84, 정서적 분리 .82였고, 어머니는 정서적 단절 .94, 삼각화 .86, 정서적 분리 .81이었다.

2)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박영애(1995)가 개발한 80문항의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에서 3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도록 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응답하기에 문항수가 많다고 보아 하위영역인 온정·수용행동, 거부·제재 행동, 허용·방임 행동의 세 가지 행동별로 요인부하량이 높은 10개 문항씩 총 30개 문항을 선정하고 이를 재요인분석하여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한 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사각회전 적용)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 모두에 대해 박영애(1995) 도구의 세 하위 영역이 확인되었다.

각 요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온정·수용 행동(10문항)은 아동에 대한 애정표현, 온정적 태도, 수용, 존중, 이해, 긍정적 평가, 관심과 참여 및 경험의 공유, 대화와 설명, 아동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와 지원, 지도의 합리성 그리고 자율성 및 독립성 장려 등의 부모행동을 포함한다. 거부·제재 행동(10문항)은 아동에 대한 불만, 부정적 평가 또는 비난, 부정적 감정표현, 적대적·감정적 훈육, 무시와 비하, 억압, 잔소리, 불신, 그리고 침해적 개입 등의 행위들을 포함한다. 허용·방임 행동(10문항)은 아동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해주는 익애·굴복형 허용과 무책임·무관심형 방임 등의 행동들이 포함된다. 이 척도는 아동이 자신의 부모 각각에 대해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아주 다르다’(1점)에서 ‘아주 비슷하다’(4점)까지 이중 하나를 선택하는 4점 척도이다. 각 하위영역별로 10점에서 40점의 점수범위를 가질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행동별로 부모가 그러한 행동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자녀가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의 Cronbach α 는 전체 문항에 대해 아버지는 .71이며 어머니는 .74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아버지는 온정·수용 행동 .86, 거부·제재 행동 .80, 허용·방임 행동 .69이며, 어머니는 온정·수용 행동은 .88, 거부·제재 행동은 .86, 허용·방임 행동은 .74이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시 한 개 초등학교의 4학년 여

섯 개 학급을 무선 선정하여 총 200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30문항)를 실시한 후, 요인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에 사용할 척도를 구성하였다. 본조사는 2003년 4월 5일부터 19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서울시 두 개의 초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각 학교의 4, 5학년에서 5학급씩 총 20학급의 아동 630명과 그들의 부모 630쌍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아동용 질문지는 담임교사가 실시하였으며, 부모용 질문지는 교사가 아동에게 배포하고 학교로 가져오도록 부탁하였다. 배포된 질문지 630부 중 544부(86%)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와 아동과 부모의 질문지 중 한쪽의 응답이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아동과 부모용 질문지 393쌍이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방법으로는 paired t검증, t검증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부모의 원가족 분화수준

원가족 분화수준이 부모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들에 대해서 paired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원가족 분화수준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분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1$). 즉 아버지의 정서적 분리 점수가 어머

니의 정서적 분리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아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원가족으로부터 건강하게 정서적 분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단절과 삼각화 하위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원가족 분화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요인들의 중간점수와 평균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경우 정서적 단절의 중간점수는 44.0, 평균은 47.8, 삼각화의 중간점수는 25.0, 평균은 25.5, 정서적 분리의 중간점수는 48.0, 평균은 47.7이다. 어머니의 경우 정서적 단절의 중간점수는 47.0, 평균은 49.6, 삼각화의 중간점수는 25.0, 평균은 25.6, 정서적 분리의 중간점수는 45.0, 평균은 45.9이다.

2. 부모의 자녀양육행동

1) 부모의 성에 따른 자녀양육행동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이 부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들에 대해 paired t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의하면 아동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더 온정·수용적이고($p<.01$), 거부·제재적으로($p<.001$)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더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1> 부모간 원가족 분화수준의 차이 (N=393)

변인	하위변인	아버지	어머니	paired t
		M(SD)	M(SD)	
부모의 원가족 분화경험	정서적단절	47.8(17.3)	49.6(19.1)	-1.48
	삼각화	25.5(8.0)	25.6(8.9)	- .13
	정서적분리	47.7(8.9)	45.9(9.6)	2.79**

** $p<.01$

<표 2> 부모의 성에 따른 자녀양육행동의 차이 (N=393)

변인	하위변인	아버지	어머니	paired t
		M(SD)	M(SD)	
부모의 양육행동	온정·수용 행동	30.7(6.73)	31.8(6.57)	-3.18**
	거부·제재 행동	15.7(5.05)	17.6(6.23)	-6.76***
	허용·방임 행동	18.3(4.89)	16.3(4.69)	8.37***

** $p<.01$ *** $p<.001$

2) 아동의 성에 따른 부모의 자녀양육행동
아동의 성에 따른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누어 각각 t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 <표 3>에 의하면 아버지의 거부·제재행동에 대한 지각에서 남아와 여아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즉, 여아보다 남아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더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도 여아보다 남아가 더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3> 아동의 성에 따른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의 차이 (N=393)

변인		남아(N=200)		여아(N=193)		t
		통계치	표준편차	통계치	표준편차	
부양의 양육행동	온정·수용 행동	30.5	6.8	30.9	6.7	-.55
	거부·제재 행동	16.4	5.3	15.0	4.7	2.77*
	허용·방임 행동	18.5	5.1	18.1	4.7	.73
모의 양육행동	온정·수용 행동	31.4	6.6	32.2	6.5	-1.29
	거부·제재 행동	18.4	6.4	16.8	5.9	2.53**
	허용·방임 행동	16.5	5.1	16.1	4.2	.86

* $p<.05$ ** $p<.01$

3. 부모의 원가족 분화수준과 자녀양육행동

부모의 원가족 분화수준에 따른 자녀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부모 원가족 분화수준

의 하위영역의 점수분포에 따라 상위 27%와 하위 27%에 해당하는 대상들을 선정하여 집단을 나누어 그 내용을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의하면, 아버지의 경우 원가족 분화수준 점수분포에서 동점자들로 인해 각 집단에는 정서적 단절 수준의 상위 27%(110명)와 하위 26.7%(105명), 삼각화 수준의 상위 27.5% (108명)와 하위 26%(102명), 정서적 분리 수준의 상위 27.5%(108명)와 하위 25.6%(100명)가 포함되었다. 이들 집단의 점수분포는 정서적 단절 수준의 상위집단이 58점 이상(평균은 70.3), 하위집단이 34 이하(평균은 29.3)였고, 삼각화 수준은 상위집단이 31점 이상(평균은 35.8), 하위집단이 19점 이하(평균은 16.1)였다. 정서적 분리 수준은 상위집단이 54점 이상(평균은 58.1), 하위집단이 42점 이하(평균은 36.3)였다. 정서적 단절과 삼각화와는 달리 정서적 분리는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과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경우 정서적 단절 수준의 상위 27.2% (107명)와 하위 27.7%(109명), 삼각화 수준의 상위 28.2%(111명)와 하위 26.2% (103명), 정서적

분리 수준의 상위 28%(110명)와 하위 27.5% (108명)가 포함되었다. 이들 집단의 점수분포는 정서적 단절 수준의 상위집단이 62점 이상(평균은 74.7), 하위집단이 34점 이하(평균은 28.3)였으며, 삼각화 수준의 상위집단은 31점 이상(평균은 37.0), 하위집단은 18점 이하(평균은 15.3)였다. 정서적 분리의 점수분포는 상위집단이 52점 이상(평균은 57.7), 하위집단이 40점 이하(평균은 34.7)였다.

1)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수준과 자녀양육행동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이 원가족 분화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원가족 분화수준 각 하위영역의 상하집단에 따른 자녀양육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t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의하면, 아버지의 경우, 원가족 분화수준 중 정서적 단절 수준의 상하집단이 허용·방임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즉, 정서적 단절 수준의 상위집단 아버지가 하위집단 아버지보다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자녀에게 지각되었다. 정서적 분리와 삼각화의 상하집단간에는 자녀양육행동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수준과 자녀양육행동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이 원가족 분화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원가족 분화수준 각 하위영역의 상하집단에 따른 자녀양육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t검증을 실시하여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 의하면,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수준의 하위영역 중 정서적 분리 수준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이 온정·수용행동($p<.05$)과 거부·제재행동($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

<표 4> 부모의 원가족 분화수준의 상하집단

변인	보고자	아버지		어머니	
		n	점수분포 M	n	점수분포 M
정서적 단절	상위집단 (27%)	110	58-118 70.3	107 (27.2%)	62-108 74.7
	하위집단 (26.7%)	105	24-34 29.3	109 (27.7%)	24-34 28.3
삼각화	상위집단 (27.5%)	108	31-52 35.8	111 (28.2%)	31-54 37.0
	하위집단 (26%)	102	14-19 16.1	103 (26.2%)	14-18 15.3
정서적 분리	상위집단 (27.5%)	108	54-70 58.1	110 (28%)	52-70 57.7
	하위집단 (25.6%)	100	14-42 36.3	108 (27.5%)	14-40 34.7

〈표 5〉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수준에 따른 자녀양육행동의 차이

독립변인	종속변인	온정·수용 행동			거부·제재 행동			허용·방임 행동			
		M	SD	t	M	SD	t	M	SD	t	
아버지 원가족 분화	정서적 단절	상 (n=110)	31.0	6.2	-.57	16.2	4.9	1.66	19.4	4.9	2.15*
		하 (n=105)	31.1	6.3		15.0	5.1		17.9	4.8	
	삼각화	상 (n=108)	30.5	6.4	-.31	16.1	4.8	.90	18.8	4.8	-.60
		하 (n=102)	30.8	7.3		15.5	5.0		18.4	5.5	
	정서적 분리	상 (n=100)	31.5	6.7	.81	15.7	4.9	.53	17.7	4.7	-1.10
		하 (n=108)	30.7	6.3		15.3	5.4		18.5	5.2	

*p<.05

〈표 6〉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수준에 따른 자녀양육행동의 차이

독립변인	종속변인	온정·수용 행동			거부·제재 행동			허용·방임 행동			
		M	SD	t	M	SD	t	M	SD	t	
아버지 원가족 분화	정서적 단절	상 (n=107)	30.9	7.1	-.92	18.5	6.6	1.50	16.4	4.7	.95
		하 (n=109)	31.7	6.6		17.1	6.7		15.8	4.6	
	삼각화	상 (n=111)	31.6	7.2	.32	17.6	6.7	-.17	16.5	5.2	.88
		하 (n=103)	31.3	6.8		17.8	6.4		15.9	4.7	
	정서적 분리	상 (n=110)	32.5	6.3	2.18*	17.0	6.4	-2.73**	16.0	5.0	.50
		하 (n=108)	30.5	7.0		19.4	6.8		16.3	4.5	

*p<.05 **p<.01

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분리 수준의 상위집단 어머니가 하위집단 어머니보다 자녀양육행동에 있어서 온정·수용적이고, 덜 거부·제재적인 것으로 자녀에게 지각되었다. 정서적 단절과 삼각화 수준의 상하집단간에는 양육행동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부모의 원가족 분화수준과 자녀양육행동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간 원가족 분화수준

원가족 분화수준이 부모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원가족 분화수준의 각 하위영역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서적 분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의 정서적 분리 점수가 어머니의 정서적 분리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아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원가족으로부터 건강하게 정서적 분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서적 단절과 삼각화 하위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원가족 분화수준 정도가 비슷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기에 부부간에 원가족 분화수준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Bowen, 1976; Mee-Gaik, 1991; Vayghn, 1989)과 부인이 남편보다 정서적 단절 경향성이 적고, 정서적 분리가 잘 되었다는 한미향(1999)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며, 남편이 부인보다 정서적 분리가 잘되었다는 이현주(1991), 전춘애(1994)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분리-개별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와 연결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Chodorow(1978)는 분리-개별화 과정이 성역할 정체감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애착과 자율성의 발달에 성별의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성역할의 특성에서 남성성은 자율성 즉, 분리로, 여성성은 애착으로 특징지어지므로, 여성은 남성보다 분리와 개별화에 대해 불안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개별화란 이제까지 자신이 속해있던 관계적 맥락에서부터 자신을 분리되고 구분되는 존재로 지각하면서 자아정체감을 발달시켜 가는 하나의 성숙과정이며 자율성은 개별화 과정의 산물로서 발달된다(Blos, 1978). 원가족 분화도 어느 정도는 개별성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원가족과의 정서적 분리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Chodorow의 이론은 경험적 연구들에서 불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어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후속 연구를 통해 자료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원가족과 정서적 분리를 잘한 또 다른 이유로 아버지의 군복무 경험의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버지는 청년초기에 군복무 경험을 통하여 보호자로부터 정서적, 심리적으로 독립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제공받게 되므로 이로 인해 어머니보다 원가족으로부터 건강하게 정서적 분리를 경험한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남성들은 군대에서 인위적으로 부모와 분리되어 독립하게 되는 기회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부모의 보호 하에서 막연했던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고야마 이쿠미, 1995), 정서적 안정(김도환, 1997), 독립심, 자신감, 강인함, 생활력 등을 보다 발달시키게 된다(김동현 외, 1985). 이와 같은 군복무 경험의 영향은 후일 아버지가 감정과 사고를 구별하여 원가족과 역기능적인 감정에 쉽게 융합하지 않고 개체화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가족의 결속과 순종을 중요시 여기는 한국사회에서, 원가족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아들에게 가족과의 결속과 순종이 더 강요되며, 아들도 가족의 결속력 때문에 부모에 대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유은희, 1991)와는 상반되는 결과이어서,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하여 타당성있는 자료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2) 부모의 자녀양육행동

부모의 성에 따른 자녀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동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행

동을 더 온정·수용적이고,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더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자녀에게 더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며(오성심·이종승, 1982; 한중혜, 1983; 허은주, 1988), 적극적 거부, 엄격, 기대, 간섭 행동을 보인다는(정명교, 1983) 선행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양육의 많은 부분을 어머니가 차지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물리적 접촉시간의 양보다 심리적 접촉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핵가족과 취업모의 증가로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바람직한 역할습득을 위한 부모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동의 성에 따른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아보다 남아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더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도 여아보다 남아가 더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부모가 딸에게는 보호적 행동과 신체적인 애정표시와 설명을 더 많이 하고, 아들에게는 의존적 행동을 보일 때 부정적인 반응을 하며(Russell, 1987), 아버지는 딸보다 아들에게 신체적·언어적 금지를 더 많이 하고, 딸에게는 더 신체적 애정표현을 한다는(Snow, Jacklin, & Maccoby, 1983)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또한 남아가 여아보다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고(양정선, 1997), 부모로부터

성취기대와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모를 더욱 거부적으로 본다(손낙주·최보가, 1996)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가 딸보다 아들의 자녀양육행동에 더 많이 참여하며,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아버지가 딸보다 아들의 사회화에 더욱 책임감을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아에게 더 엄격하고 요구적인 양육행동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남아의 경우, 활동성이 여아보다 커서 통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으며,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부모가 남아는 성취위주로 양육하고 여아는 인성위주로 양육하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Block, 1983), 남아에게는 성취와 경쟁, 독립심을 강조하고 그들의 정서를 잘 조절하도록 격려하며, 더 처벌적이고 외부 기준에 동조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딸에게는 온정적이며 신체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덜 처벌적이고 여성적인 행동을 기대하며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3) 부모의 원가족 분화수준과 자녀양육행동

본 연구에서 부모의 원가족 분화수준의 하위 영역에 따라 상위집단(약 27%)과 하위집단(약 27%)으로 분류하여, 상하집단에 따른 자녀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서적 단절 수준의 상위집단 아버지가 하위집단 아버지보다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자녀에게 지각되었다. 정서적 분리와 삼각화의 상하집단간에는 자녀양육행동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원가족에서 정서적 단절을 많이 경험할수록 부모는 자녀와 갈등적인 상호작용을 하며(유은희, 전춘애, 1995), 허용 또는 과보호하는 등(정문자, 1996) 부모 자신이 원가족에서 경험한 부모자녀관계 유형을 자신

이 형성한 핵가족 내에 세대간 전수를 한다는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정서적 단절은 세대간의 잠재된 융합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세대간의 정서적 융합이 심할수록 정서적 단절의 가능성 또한 높다. 융합이 심한 사람은 가족과의 정서적 접촉을 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소외에서 오는 불안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또 다른 융합을 초래한다. 따라서 세대간의 정서적 단절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거나 자기 출생가정의 중요성을 부인한다. 과거와의 정서적 단절이 심할수록 자기 자신의 결혼생활과 부모의 가족 문제를 관련시켜 생각하며 자녀들과의 정서적 단절이 좀 더 심화된다(송성자, 1995). 김희주(1996)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더 애정적이며 독립적으로 자녀를 키우며 적극적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하며 합리적으로 자녀를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가 부모와 정서적 단절을 경험하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경우 자녀양육에 덜 참여하는 무책임·무관심형 방임행동을 보이며, 이에 대한 죄책감과 보상심리로 인하여 자녀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해주는 익애·굴복형 등의 허용행동을 보이게 된다.

어머니의 경우, 원가족으로부터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분리되어 적절한 친밀감과 자율성을 이룬 상위집단 어머니가 하위집단 어머니보다 자녀양육행동에 있어서 온정·수용적이고, 덜 거부·제재적인 것으로 자녀에게 지각되었다. 정서적 단절과 삼각화 수준의 상하집단간에는 양육행동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원가족 분화수준 중 정서적 분리가 자녀의 양육행동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족과 정서적 분리가 잘 된 어머니가 자녀에게 공감적이고 긍정적인 배려를 하며, 확신과 타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의사소통을 하고, 통제와 권위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Anderson & Sabatelli, 1992)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어머니가 원가족과 합리적인 수준의 정서적 관계를 맺는 것은 서로간에 불안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나은 분화수준으로 진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통하여 자녀가 가족으로부터 높은 분화수준을 획득하도록 자신의 정서적 세계와 자녀의 정서적 세계를 구분하여 자녀가 자율성을 발달시키도록 한다. 따라서 자녀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심리적 독립을 위해서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서 단순히 의사소통방법과 같은 기술적 측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원가족과의 정서적 관계를 성찰하고 이해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정서적 분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결과를 초등학교생과 그들의 부모에 대한 것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아동의 학교를 통해 부모의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의 원가족 분화수준에 대해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원가족 분화수준과 자녀양육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대상이 어머니로 제한되었던 선행 연구와는 달리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원가족과의 관계가 자녀양육행동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얻은 것이 학문적 소득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모 자신이 원가족과의 정서적 관계를 성찰함으

로써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자녀양육행동상의 장·단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개선해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그 뿐 아니라 부모교육 현장이나 임상 실재에서 예방 및 치료적 중재 시 원가족 영향력에 대한 중요성과 구체적인 개입의 내용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들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승혜(1986).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에 관한 일 연구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은주(2000). 자녀 성차에 따른 양육태도 세대전이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야마 이쿠미(1995). 군복무 경험이 한국 남성의 의식에 미친 영향 -대졸 이상 육군 전역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도환(1997). 군복무 경험이 청년초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공산논문집*, 39, 283-301.
- 김동현·백종천·홍두승·김희희(1985). *군복무 경험이 국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현대사회연구소.
- 김현주(1996). 어머니가 지각한 친정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인 딸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주(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희선(1995). 어머니의 자아분화수준과 자녀양육태도의 관계 -Bowen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전현진(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153-169.
- 박성연·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 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4), 117-133.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낙주·최보가(1996).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기평가가 학습된 무기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245-257.
- 송성자(1995). *가족과 가족치료*. 서울: 법문사.
- 양정선(1997).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심·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연구노오트*, 11(1), 서울: 행동과학 연구소.
- 유은희(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아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은희·전춘애(1995). 모의 자아분화수준과 모자간의 갈등이 청년기 자녀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3, 137-153.
- 이영화·유가효(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6(1), 89-105.
- 이현주(1996).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과 출생 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지각이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자(2000). 세대를 통하여 전이되는 조모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조모의 양육지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연진(2002). 부모의 원가족 경험, 부부갈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지각이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명교(1983).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문자(역)(1996).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Cater, B., & McGoldrick, M. (1989).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 :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 최규순(1992). 아버지와 아들, 두 세대간의 아버지 양육행동에 관한 비교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향(1999). 부부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방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종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은주(1988). 부모의 성 및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양육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derson, S. A., & Sabatelli, R. M.(1992). 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s : DIF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89-101.
- Benson, M. J., Larson, J. H., Wilson, S. M., & Demo, D. H.(1993).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 663-672.
- Block, J.(1983). Assimilation, accommodation, and the dynamics of personal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3, 281-294.
- Blos, P.(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owen, M.(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Ed.), *Family therapy*. New York : Gardner Press.
- Bowen, M.(1985).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Jason Aronson, Inc.
- Chodorow, N.(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 Psychoanalysis and the Sociology of Gender*, Berk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avies, P. T., & Cummings, E. M.(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evereux, E. C., Bronfenbrenner, U., & Rogers, R. (1969). Child-Rearing in England and the U.S. : A Cross-National Comparis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1, 264.
- James, M., & Jongeward, D.(1971). *Born to win*,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Inc.
- Lim, M-G., & Jennings, G. H.(1996). Marital satisfaction of healthy differentiated and undifferentiated couples. *Family Journal*, 4(4), 308-315.
- Luster, T., & Okagaki, L.(1993). Multiple Influences on Parenting : Ecological and Life-course Perspectives. In Luster, T. & Okagaki, L.(Eds.), *Parenting :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 Lawrence Erlbaum, 227-250.
- Mee-Gaik, Ng.(1991). Family of origin differenti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healthy like, healthy unlike, unhealthy like, and unhealthy unlike couples.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 Rothbarth, M. K., & Maccoby, E. E.(1966). Parents' differential reactions to sons and daught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227-243.
- Russell, G., & Russell, A.(1987). Mother-child and Father-Child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8, 1573-1585.
- Sabatelli, R. M., & Anderson, S. A.(1991). Family system dynamics, peer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Family Relations*, 40, 363-369.
- Snow, M. E., Jacklin, C. N., & Maccoby, E. E.(1983). Sex-of child difference in father- child interaction at one year of age. *Child Development*, 54, 227-232.
- Vayghn, K. L.(1989). Differentiation of self : A validation study. Master Dissertation Abstracts, Texas Woman's University.

2004년 2월 29일 투고 : 2004년 3월 30일 채택